

‘한 구석 밝히는’ 대신대학교

김영실
대신대 총장



1. 설립배경과 건학이념

1948년 암울했던 시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여 경제적인 성장과 민족의 중흥과 발전을 이룩해 보겠다는 결심에서 서울 남대문 장로교회에 그 본부를 두고 당 교회에서 시무하던 김치선 목사님이 야간 신학원을 처음 개설하였다.

1952년 문교부의 인가를 얻어 대한 신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신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육성하였다.

1981년 신학과 이외의 일반학과를 신설하여 학력 인정학교로 발돋움하였다. 그후 1991학년도 일반대학 개편 승인을 받아 대신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여 인문계열과 동시에 자연계열의 학과를 대폭 증설하였다. 1993년 대신대학교로 변경하여 경기도 안양시의 유일한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기독교 정신을 근간으로 하여 설립된 본 대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문과 진리를 탐구케 하여 국가와 인류 사회의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고급 인력을 양성하며, 나아가 전인교육을 통하여 고매한 민주적 품격과 역량을 갖춘 유능한 지도자를 길러 문화, 사회, 경제전반에 걸친 사회변혁과 국제화 시대에 주역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학생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85년 제7대 학장으로 취임한 후 일반대학으로의 발전과 수도권에서 명문 대학을 만들기 위하여, 진리야말로 우주만물을 움직이는 법칙이며 궁극적으로 절대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에 안김으로 승화되는 것이라 생각되어 ‘진리’를 교훈으로 삼고 진리의 탐구, 교육 및 실천을 그 덕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걸맞고 민족의 발전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바로 조일우(照一隅: 한글 뜻은 한구석 밝히기)임을 알고, 한 구석을 밝히는 국민을 육성하고 자기 몫을 다할 수 있는 국민을 기르는 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대신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기독교 정신과 “한구석을 밝히는 사람이 곧 그 나라의 국보”라는 조일우 정신을 접목시켜 진리를 추구하고자 한다.

2. 학교 규모 및 교육환경

서울의 남쪽에 인접한 경기도 안양의 수리산 기슭에 자리잡은 본교는 총 3,400여 학생의 진리 탐구의 장이다. 본 대학의 기구는 4개 학부(인문과 학부, 사회과학부, 신학부, 자연과학부) 내에 8개 계열(인문계열, 사범계열, 예능계열, 법정계열, 경상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신학계열)에 주야간 23개 학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학사행정을 돕기 위하여 3층 1실로 운영되고 있다. 부속기관으로는 수많은 장서가 구비된 개가식 중앙도서관, 학생들과 교수들의 신앙을 돕기 위한 교육실 및 방송국, 신문사, 출판부, 교지편집실 등이 있다. 특히 도서관에서는 빠른 정보와 자료를 입수하기 위하여 전산화가 추진되고 있고, 매학기마다 교수, 학생들이 신청하거나 필요로 하는 도서를 전량 구입하여 비치하고 있다.

또한 부설기관으로서 한구석밝히기 국민운동을 권장하는 조일우 연구소, 신학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신학연구소, 사회복지행정의 연구를 통하여 사회복지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는 세계사회복지 연구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복지행정 연구소, 인문과학연구를 통하여 문화발전 및 학문 발전을 위한 인문과학 연구소, 정치·경제·사회·행정·관광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연구를 수행하는 사회과학 연구소, 자연과학 전반에 걸친 기초 이론과 응용을 연구함으로써 과학입국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자연과학 연구소, 국제화 시대에 맞는 학생을 키우기 위한 외국어 교육원 등 7개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각 연구소에 알맞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매학기 발표회를 갖고 연구 결과는 학술지를 통하여 발표하고 있다.

부속기관인 전산소에는 현대과학의 총아인 컴퓨터를 학생들이 언제나 실습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도록, 국내외에서 연구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

로그랩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그 장비로는 대형 컴퓨터 2대와 퍼스널 컴퓨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실습에 필요한 20여 종류 160여 점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

또한 특기할 사항은 교수들을 중심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발굴하고 연구하고 있는 자료들과, 안양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의 역사적 자료를 발굴·연구하기 위한 국내 유일의 성서 고고학 박물관을 계획하고 있다.

안양의 중심부에 있는 본 대학은 입구에서 약간 오르막을 오르면 맨 앞의 건물이 현재 본부가 있는 대신관, 바로 위쪽에 수리관, 수리관을 중심으로 오른편이 문화관, 왼쪽편에 한창 신축하고 있는 제 4 강의동, 고시반과 학생회관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는 새솔관 등이 있고 수리관에서 약간 오르막을 오르면 넓은 운동장이 있다. 제 4 강의동은 1994년 말 완공 예정으로 13층 높이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서울 용산구에 신학을 연구하는 연구원 서울 교사가 있다. 현재 건설하고 있는 건물이 완공되는 1994년 말에는 총 27,488.28m²의 본부 건물과 강의동으로 형성된다.

운동장을 가로 지르면 수리산점으로 올라가는 길목이 있고 그 길목의 양편에는 울창한 소나무들이 뽕뽕이 둘러싸여 있어, 언제든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학생들끼리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수리산의 맑은 공기와 서울 인접지역이라는 특장점을 지닌 본 대학은 수준 높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한구석을 밝히려는 정신으로 열심히 정진하고 있다.

3. 교육목표는 照一隅

1) 한구석밝히기 운동 배경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유구한 역사와 창조적이고 개척적인 정신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물질만능 사상이 팽배해지면서 이런 정신은 소멸되어 가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여과치 않고 쉽게 받아 들임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불굴의 정신이 쇠퇴해 가고 있다. 이에 우리 국민의 잠재 능력을 일깨울 수 있으며, 참으로 도

덕적이고 정의로운 국민이 되고 개인에게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밑바탕이 되는 이념을 찾으려고 노력하던 끝에 찾아낸 것이 바로 조일우 정신, 즉 한구석 밝히기이다.

조일우 정신은 교육계 생활 40년 넘게 찾아해매던 것으로, 그 근거를 사마천(司馬遷)의 『史記』에서 찾았다. 그에 의하면 “한구석을 밝히는 사람이 곧 그 나라의 국보”(국보란 보석이나 물질적인 풍요 같은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구석구석을 밝혀주는 국민들이 탄생하기 위한 방법이며 철학)라는 글을 읽고 인간국보교육, 즉 한구석을 밝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국민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모든 국민에게 전파해야 할 책무를 갖고 본교와 서울 시흥동에 있는 문일고등학교에 본부를 두고 범국민적 운동을 시작하였다.

조일우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이 각 인자를 우수한 우성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진정한 접순이다. 겉모양으로는 보잘것 없고 하찮은 이론 같으나 좋은 접순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엄청난 기적과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 본다. 이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실천한다면 신한국의 창조는 물론 정신적 물질적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한구석은 삼라만상의 온지풍광의 자리이며 인간의 존재론적, 사회적, 역사적,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제자리 찾기 운동이다. 그 자리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자리가 아니고 역사적 현실 속에서 자기를 체험하며, 그를 실현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단 하나뿐인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다. 이 운동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계층을 위한 정신이나 철학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며, 이를 받아들이고 동참한다면 모름지기 자기라는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제 구실을 다할 수 있다.

2) 한구석밝히기 운동의 전개

오늘날 과학과 기술의 바벨탑은 날로 높아감으로써 신비에 싸여있던 우주는 탈신비화되고 물질화되어 단순한 정복의 대상으로 변해버렸다. 개인들도 위대한 조물주의 부름을 과학적이지 아니라고 비웃게 되고, 각자에게 주어진 우주의 작은 지체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럼으로써 코스모스 시대가 아니라 카오스 시대

가 지배하는 세계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지구촌의 부조화, 혼란과 갈등의 대립은 인류 전체가 각자의 자기 자리, 즉 우주에서의 자기 구석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인체에 비유하면, 코는 코의 위치를 지켜야 하고 다리는 다리, 눈은 눈의 위치를 지켜야 하듯이 우리는 지금 조물주가 정해준 자리, 즉 우주의 창조원리를 망각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민족, 인류 모두가 방향을 잃고 우주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류의 발전, 행복, 평화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차제에 한구석밝히기는 각자가 우주 창조의 원리에 따라 자기자리를 찾아 제 구석을 밝고 깨끗하게 다시 창조해 가자는 제안이다. 자연, 인간, 신의 원래적 관계를 회복하고 아름다운 창조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원리를 한구석밝히기에서 찾고자 한다. 우주와 인간세계의 존재의 불균형을 진단하고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모름지기 각자가 우주에서의 자기 구석을 찾아 밝히는 일이다. 이것은 바로 타고난 소질과 재능을 소중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결실을 맺는 일이다.

현대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라도 한구석 밝혀나가는 데로 매진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4. 발전방향

본교는 신학교로는 긴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일반 학과는 불과 몇 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속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 양적인 팽창은 물론 질적인 변혁도 함께 일어났다. 또한 학생 측면에서도 보다 나은 사회인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를 거듭해 나가고 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1) 조일우 정신의 교과과정 반영

1980년대 문교부의 지시로 각 대학에 특성학과를 설치하도록 하여 연구와 재정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인 특혜를 준 적이 있다. 이 제도는 어떤 측면에서 한구석밝히기 운동의 실천적 단계이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95학년도부터 전면적인 교과편성을 단행하여 각 학과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학생들이 100퍼센트 소화해낼 수 있는 특정한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지도, 육성하도록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즉, 학과를 특성화해 어떤 학과든지 한 분야만은 국내 어느 대학 학생보다도 우수한 학생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2) 진취적인 학사 행정 및 기타

대학은 모름지기 국가의 동량을 길러내는 장이므로, 교육에 필요한 모든 여건들이 튼튼한 기반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진리를 연구하는 대학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수논문 시상식을 확대시켜 제도화 할 것이다. 또한 교수들의 연구를 위하여 해외 파견 및 대학간 교류도 추진중에 있다. 연구와 강의의 질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수를 대폭 충원하여 교수당 학생 비율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학사 행정 분야에서도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신학대학을 근간으로 하여 일반학과의 확충에 의한 이분법적인 방법을 도입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즉,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같은 선상에서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시설분야에서도 94년말 완공되는 제 4 강의동뿐만 아니라 연차적으로 실험과 연구 및 강의에 부족함이 없도록 대폭 건설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생활 공간 및 휴식공간을 대폭 증설하여 대학 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대학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